

# 죽음 넘어서기, 그 부정과 긍정의 변증법

## 미술작품에 형상화된 죽음

죽음에 대한 관념은 시대와 사회마다 달라져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무덤 속에는 생시의 모습 그대로 황금의 테드마스크까지 쓴 '황홀한 죽음'이 누워 있다. 철저히 사후세계를 믿었던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반면 진시황은 평생토록 불로장생을 꿈꾸며 죽음을 피하는 문제에 집착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불귀의 객'이 됐고, 영생에 대한 그의 사자후는 거대한 테라코타 근위병들의 위용 속으로 사라져 이젠 죽은 자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만날 뿐이다.

### 우리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으로

인간은 지적 사유를 시작하면 서부터 죽음을 탐구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죽음의 문제가 철학적으로 논의됐고, 중세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죽음을 성찰했다. 죽음은 크게 '나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나뉜다.

중세는 공동체 사회였다. 한 사람의 죽음은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공공행사였다. 그런 만큼 초기 중세인들이 두려워한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특정한 방식이었다. 프라 안젤리코의 <성 프란치스코의 죽음>은 죽음을 공동체의 집단적 운명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표현돼 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면 사정은 확연히 달라진다. 그는 죽음 자체보다 '심판'에 집중한다. 그는 천국과 지옥의 풍경 속에 심판대 위에 올려진 인간들의 불안한 심리와 혼란을 표현했다. 곧 죽음을 대하는 보편적 불안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에 이르면 사람들은 '나도 죽는다'는 특수한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 시기엔 특히 '마카브르'라 불리는, 썩은 시체를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들이 많이 등장한다. 1460년경에 제작된 자카 미상의 그림 <저주받은 연인>은 개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신 앞에 겸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다.

르네상스를 거쳐 바로크 시대로 접어들면 죽음은 이제 더 공격적으로 변해 공포의 대상이 된다. 니콜라우스 마뉴엘의 <죽음과 소녀>는 낭만주의 시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계속된 '죽음과 소녀' 테마의 효시다. 누더기처럼 너털너털한 살가죽을 뒤집어쓴 죽음이 소녀와 다정하게 키스를 나누고, 그의 왼손이 대담하게 스커트 속



죽음을 숭고한 차원으로 승화시킨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을 더듬고 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이 시대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임을 엿볼 수 있다.

### 절망으로 가득한

### 현대인의 내면 담아내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면 죽음은 '너의 죽음'으로 전환된다. 너의 죽음 앞에 남겨진 것은 산 자들의 슬픔이다. 산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부재하는 삭막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다. 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혁명가이자 프랑스 민민의 벗이었던 '마라의 죽음'을 그림 속으로 불러들인다. 또 시대는 어긋나지만 르네상스 전성기의 대표작인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도 '너의 죽음'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 위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슬픔과 고통을 내면화시켜 죽음을 종교적 숭고함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로댕의 <지옥문>은 <최후의 심판>과 내용과 구성이 비슷하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절망적 인식의 결과물이다. 이런 인식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비극성이 자리한다. <절규> <죽음의 방> <소녀와 죽음> 등을 남긴 뭉크는 거의 평생 동안 삶과 죽음, 곧 '생의 프리즘'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사랑은 불안을 낳은 가장 큰 요인이며, 사랑이 도달하는 곳은 결국 죽음이라고 인식했다.

현대에 이르면 죽음은 더욱 터부시된다. 죽음이 등장하는 그림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오늘날의 죽음은 과거의 신이 아닌, 전쟁에 의한 심판이 주류를 이룬다. <죽음의 섬>을 그렸던 아놀드 뵈클린은 <전쟁>과 <페스트>를 남겼다. 이 그림들은 죽고 죽이는 '피의 복수혈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통해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전쟁의 맹목적인 폭력을 고발한다. 이로써 오늘날 전쟁을 통한 집단적 죽음은 '현대의 목시록'으로 자리하게 된다. — 박옥순 기자